

역사의 기록 : 인간 최고의 한계

본 문 고린도전서 13장 9-1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8월 13일 주일부터 전해 주는 단상의 모든 말씀은 모두 ‘설교집, 잠언집’ 으로도 만들지만, <역사의 기록>으로서 ‘주제별, 분야별’ 로 <책을 엮어 남길 말씀들>입니다.

고로 <역사의 기록>이라는 주제를 달지 않아도 <교육국>은 주제별로, 분야별로 주의 말씀을 따로 엮어서 <책>으로 꼭 만들기 바랍니다.

<출판국>은 계속 ‘설교집, 잠언집’ 을 엮으면 됩니다.

◎ 오늘은 ‘**인간 최고의 한계**’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은 <특강>이기도 합니다.

정말 잘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, 깊은 말씀입니다.

말씀을 잘 이해하라고, 오늘은 특별히 <영상>을 많이 준비했습니다.

<말씀 시작> 중요 부분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산 정상>을 다 올라가면,
거기가 <한계>라서 더 이상 ‘오를 곳’ 이 없습니다.
거기서 더 가면, ‘내리막 산길’ 입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인간>에게는 ‘한계선’ 이 있습니다.

그 <한계>까지 다 해야 더 이상 ‘오를 곳’ 이 없으니,
인간으로서 할 것을 다 한 것입니다.

- ◆ 사람들은 대개 <한계선 전>까지는 잘 갑니다.

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‘산 정상’ 에 오르듯 하는데,
거기서 더 안 하니 ‘정상, 한계’ 까지 못 가고 맙니다.

- ◆ <한계선까지 다 간 자>가 거기서 더 가려고
정상에서 또 ‘오르는 도전’ 을 하지만,
이미 <한계, 정상>에 올랐으니 도전해도 ‘늘 그 자리’ 입니다. <끝>

- ◆ 하나님은 인간에게 <선악 간의 한계>를 정해 놓으셨습니다.
고로 사랑도, 미움도, 이성도, 영광도 다 ‘한계’ 가 있습니다.

- ◆ 왜 인간에게 <한계>를 정해 놓으셨냐고 물으니,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다.” 하셨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 중요

- ◆ <인간의 육신>에게도 ‘한계’를 두어
계속해서 ‘정상’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,
그것이 <영혼>으로 연결되어 무한하게 오르게 하셨습니다.

- ◆ <육>과 ‘영’은 다릅니다.
그래서 <영의 한계>는 ‘육의 한계’와 다릅니다.

<영>은 늡지 않으니 ‘한계’를 맞으면 ‘희망’도 끝납니다.
그래서 계속해서 차원 높여 오르게 하셨습니다.

<자기 육신의 행위>를 통해

<영혼>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로 만들게 하시고,

거기서 구간마다 <한계>를 두어 계속 차원을 높이고 만족하면서
이 차원에 오르면 다음 차원으로,

다음 차원에 오르면 또 그다음 차원으로 무한하게 오르게 하셨습니다.

<삼위의 사랑의 대상>이 되어 사니,

<사랑의 만족한 대상>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, 최고로 중요한 부분

◎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특히 잘 듣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 중요

- ◆ <이 세상에서 육의 최고 한계>는
성약의 휴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입니다.

그러면 <그 영이 거할 곳>이

천국에서 최고의 위치인 ‘황금성 천국’ 이 됩니다.

<황금성 천국>이

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고 목적하신 최고의 세계입니다. <끝>

◆ <천국>은 ‘사랑’ 으로 오릅니다.

<사랑의 차원>대로 ‘각각 다른 차원의 천국’ 으로 갑니다.

이것은 ‘땅’ 에서 ‘육의 행위’ 로 결정됩니다.

<땅>에서 ‘육신’ 이

어느 시대를 만나, 누구를 믿고,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며,

삼위를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

<그 사랑의 차원>대로 ‘천국의 위치’ 가 결정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 중요

◆ <신약 자녀권 시대의 도전>은

‘누가 주를 절대 믿느냐.’ 하는 도전입니다.

<성약 신부권 시대의 도전>은

‘누가 다시 오신 주의 말씀을 듣고,

땅에 보이는 주와 삼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.’ 하는 도전입니다.

<사랑의 도전의 차원>대로 ‘천국의 위치’ 가 결정됩니다. <끝>

◆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

<성약 신부급 역사>입니다. <휴거 역사>입니다.

고로 ‘절대 하늘 신부가 되는 차원에서의 도전’ 입니다.

마지막 최고의 역사인 <휴거>는 ‘신부급 사랑의 도전’입니다.
이 차원으로 삼위를 사랑하는 대로 느끼고, 받고, 얻게 됩니다.

- ◆ <마지막 역사의 비밀>은 ‘사랑이 핵’입니다.
<사랑>으로 말미암아 ‘휴거’로 ‘영의 운명이 좌우’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 중요, 중요

- ◆ 하나님은 이 세상에 ‘사랑’으로 <사랑의 씨>를 뿌리셨습니다.
이것이 ‘알파’ , 곧 ‘역사의 시작’입니다.

그리고 <마지막 역사의 때>에
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‘메시아’를 보내어
<사랑의 열매>를 맺어 ‘오메가, 끝’을 맺으십니다.

곧 <마지막 성약역사, 휴거의 때>에
주를 통해 ‘최고의 말씀과 사랑’으로 역사하시고,
때를 따라 ‘사랑으로 변화된 휴거의 영’을 거두십니다.

인간으로서 ‘그 이상’은 없습니다.

- ◆ 그로 인해 <영>이 ‘천국의 세계’를 얻게 되는데,
그곳이 곧 ‘최고의 천국, 황금성’입니다.
- ◆ 고로 <땅에서 육신을 쓰고 영을 만드는 최고의 한계>는
최고의 천국인 ‘황금성, 하나님 보좌 앞’입니다. <끝>

◎ 여기까지 잘 이해했지요? 깊은 말씀입니다.

- ◆ 이것이 ‘인간으로서 최고의 한계까지 온 것’입니다.

그 이상은 <휴거된 영>이 ‘황금성 천국’에서 살면서,
무한하게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 중요

- ◆ <신부급 성약역사, 휴거 역사>를 만나
<자기 육의 행위>로 <영>이 최고 한계선까지 만들어져
<황금성 천국>에 가게 되면,

→ 거기서 더 배우고 성장하여

<하나님적 사고, 생각, 능력을 갖춘 대상>으로 변화되어

<영의 형상>이 ‘미와 선과 빛’으로

계속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. <끝>

- ◆ <영이 황금성에서도 계속 오르는 도전>을 하면 피곤하겠다고 하니,
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차원을 높여 오를수록, 삼위를 더 닳아 갈수록

더 보이고, 더 느껴지고, 더 알고, 더 누리고,

<영의 형체>도 더 빛이 나고, 더 아름다워진다.

<휴거된 영>이 <황금성>에 온 후에도

더 배우고 성장하여 ‘전능자의 차원’으로 오르다 보면,

그만큼 보이고 느껴지고 알고 대하니

더욱 ‘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세계’다.

매일 자기를 만들기다.”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육신의 희락, 사랑, 권세, 명예>만 중심하고,
<영원한 영의 사랑과 권세>를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누리는 영광은
창틈으로 흘러나오는 빛 정도의 영광에 불과합니다.
그 빛으로는 안 됩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- ◆ <영의 세계>는 ‘빛의 대(大)세계’입니다.
 <선영계>와 <낙원 영계>가 있고,
 <천국> 안에도 ‘수만 층의 빛의 세계’가 있습니다.
 이 영의 세계들은 <황금성 천국>에 비하면,
 문틈으로 나오는 빛 정도의 세계입니다.
 <인간에게 허락된 한계선>까지 ‘최고’로 올라가야 됩니다.
 곧 ‘하나님 보좌 앞, 황금성’까지입니다. <끝>

- ◆ 한 차원 더 오르면 그 전과는 ‘엄청난 차이’가 납니다.

한 차원 더 오르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된 것 같고,
또 한 차원 오르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된 것 같고,
또 한 차원 오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, 청년이 된 것 같고,
또 한 차원 오르면 완전히 성장한 자와 같이 됩니다.

마치 ‘과일이 제때가 돼서 다 익고 완성된 것’과 같습니다.

- ◆ <한 차원 밑>과 <한 차원 위>는 완전히 다릅니다.

<한 차원 밑에 있는 사람들>을 다 합쳐도
<한 차원 위에 있는 사람 한 명>을 못 따라잡니다.

고로 <한 차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>을 다 합쳐도
<한 차원 위에 있는 사람 한 명이 누리는 것>을 못 따라잡니다.

그래서 차원을 높이라는 것입니다.
<한 차원 높이는 것>이 그리도 귀합니다.

- ◆ 비유컨대 <밑의 차원>은 ‘초가집 100채’ 라면,
<위의 차원>은 ‘현대식 빌딩 한 채’ 입니다.

<초가집 100채>를 다 써 봐도
<현대식 빌딩 한 채>만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- ◆ <한 차원 낮은 차원의 구약인들 모두가
보고 듣고 누리는 것>을 다 합쳐도
<한 차원 높은 신약의 아들딸 한 명이
보고 듣고 누리는 것>을 못 따라잡니다.

<한 차원 낮은 신약의 아들딸 모두가
보고 듣고 누리는 것>을 다 합쳐도
<한 차원 높은 성약의 신부가 된 한 명이
보고 듣고 누리는 것>을 못 따라옵니다.

<시대>를 두고 ‘한 차원’ 높이면, ‘완전히 딴 세상’ 입니다.
상상도 못 합니다. <끝>

◆ <중 입장의 구약 - 자녀 입장의 신약 - 신부 입장의 성약>은

- ▶ 토끼 - 돼지 - 소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- ▶ 토끼 - 사슴 - 치타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- ▶ 고양이 - 살쾡이 - 호랑이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- ▶ 참새 - 꿩 - 독수리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- ▶ 초가집 - 아파트 - 빌딩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- ▶ 호수 - 댐 - 바다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
◆ 한 차원 높이려면, ‘현재 차원’에서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.
한 때 두 때 반 때까지 ‘한 기간’을 잘해야 됩니다.

<그 차원>에서 더 할 것 없이 하면,
바로 <다음 차원의 문>을 열고 오르게 됩니다.

<주>가 ‘다음 차원의 문’이 되어 열어 주십니다.

◆ 인간은 ‘그 차원의 한계’까지 가야,
그제야 ‘그 주관권’에서 극적으로 만족합니다.

그리고 ‘그 주관권의 최고의 것’을 맞고 얻게 됩니다.

그제야 ‘그다음 차원’으로 가게 됩니다. 믿습니까?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천국>이 ‘집 한 채’ 같이 ‘하나’가 아닙니다.
<수천, 수만 차원>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- ◆ 그래서 <천국>에 가면, 많은 자들이 실망할 것입니다.

왜요? <천국>은 상상도 못 하게 좋은 곳으로만 알았는데,
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.

왜 그럴까요?

<세상>에서 ‘육신’ 이 하나님과 주를 ‘보통’ 으로 믿었으니,
<그 영이 거하는 영의 세계>도 ‘보통 세계’ 입니다.

<세상>에서 <육신>이 ‘어느 시대’ 를 만나 ‘어떤 말씀’ 을 듣고,
성삼위를 ‘어느 차원으로 사랑’ 했느냐에 따라서
<그 영이 가는 영의 세계>가 결정됩니다.

- ◆ 반면, <천국>에 가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랄 자들도 있습니다.
상상했던 것보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입니다.

곧 <최고의 세계, 하나님의 보좌 앞, 황금성 천국>입니다.

- ◆ 그런데 이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.

<세상>에서 <육신>이
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‘메시아’ 를 믿고,
그를 통해서 하시는 ‘신부급 새 말씀’ 을 듣고,
삼위 앞에 ‘신부’ 가 되기까지 육과 영을 만들어서
<휴거의 영>이 된 자들에게만 <황금성 천국>을 지어 주십니다.

여기서도 <황금성의 기본>은 ‘하나님’ 이 해 주시는데,
<황금성의 집>은 ‘자기 공력’ 에 의해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.

어떻게 만드냐고요?

<땅>에서 <육신>이 ‘시대 주의 말씀, 신부의 말씀’ 을 듣고 행하며
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, 사랑하는 그 <육의 행실>로
<황금성 천국의 집과 환경>을 건설해 나갑니다.

◆ 이 <황금성 천국>에 가야

- ‘인간으로서 최고의 한계’ 에 도달한 것이고,
- ‘인간으로서 최고의 천국’ 에 가는 것입니다.

◆ <황금성 천국을 차지한 자들>은

- ‘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알고 행한 자들’ 입니다.
- ‘진정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 입니다.

하나님은 이들을 ‘최고의 사랑과 계획’ 으로 대하십니다.

◆ ‘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것을 주실까?’ 하지만,
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들>이 쓰니 ‘하나님의 것’ 과 같습니다.

그러니, 100% 신부로 만든 자들에게 100% 완전히 주십니다.

◆ <인간>만을 위해서 ‘황금성’ 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.
<하나님 자신>을 위해서도 ‘황금성’ 을 만드셨습니다.

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든 자들>과 함께
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심에 만족하고
영원히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‘황금성’ 을 만드셨습니다.

◆ 마지막으로 ‘성령님의 말씀’ 을 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.

“<황금성 천국>은 ‘사랑 덩이 세계’ 다.
<집>도 <환경>도 ‘사랑 덩이’ 다.

고로 <땅>에서 ‘육신’ 을 가지고 살 때,
<너의 생각, 마음, 행실>도 ‘사랑 덩이’ 로 만들어라.

그래야 <너의 영>도 ‘사랑 덩이’ 가 되어
<사랑 덩이 세계, 황금성 천국>을 차지하고,
<사랑의 본체인 성삼위>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만족하며 산다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